

Issue Monitor

R21: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국의 모임

삼성KPMG 경제연구원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국의 모임 R21

The contacts at KPMG
in connection with this
report are:

이광열

경제연구원

Partner, *삼정KPMG*

Tel: + 82 2 2112 0062
Fax: + 82 2 2112 7441
kwangryeolyi@kr.kpmg.com

고아름

경제연구원

S. Analyst, *삼정KPMG*

Tel: + 82 2 2112 0697
Fax: + 82 2 2112 7441
ako@kr.kpmg.com

김현규

경제연구원

Analyst, *삼정KPMG*

Tel: + 82 2 2112 7485
Fax: + 82 2 2112 7441
hyungyukim@kr.kpmg.com

	Page
Executive summary	3
2040년 한국은...	4
향후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신흥국 그룹 R21	4
왜 R21 국가인가	5
■ 풍부한 잠재 내수시장	6
■ 높은 교육 수준의 우수한 인적자원	6
■ 풍부한 자원보유량과 자원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7
한국기업의 활발한 對 R21 해외 투자	7
지역별 R21 국가들의 특징	8
아시아	8
■ 거대 내수시장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통한 높은 잠재 성장력	
■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최대 해외 투자 대상 지역	
유럽	10
■ 광활한 영토와 자원을 바탕으로 다시 떠오르는 신흥 주자	
■ 제조업 중심의 투자,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미미한 편	
중남미	11
■ 세계 경제의 불량아에서 우등생으로...	
■ 브라질 멕시코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투자 붐	
오세아니아	13
■ 차세대 자원 신시장으로 급부상	
■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 증가	
아프리카	14
■ 인류의 마지막 신시장 아프리카	
■ 향후 가장 매력적인 시장, 하지만 투자는?	
시사점	15

글로벌 경제위기를 넘기면서 세계경제는 대변혁을 겪고 있다.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국가들은 선진국들에 비해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며 기존 선진국 중심의 패러다임에 도전하고 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신흥국 그룹들에 속한 21개국의 신흥국을 'R(Rising)21'로 지칭하고 이들 R21 국가들의 특징과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R21 신흥국 그룹에 선정된 국가들은 이미 여러 글로벌 경제 기관들에 의해 분석되어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것이 모든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는 보증수표라고 단정지어서는 안될 것이다. 기업이 해외 진출을 계획할 때 해당 국가의 철저한 사전조사와 리스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풍부한 잠재 내수시장 및 자원보유량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이 기대되는 R21

- 여러 글로벌 경제기관에서 지목한 신흥국 그룹들에 속한 R21 국가의 공통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R21 국가들은 다수의 국가들이 인구의 증가와 1인당 GDP의 지속적인 증가를 바탕으로 내수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열악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전망이다.
- 또한 거대한 인구는 잠재수요이자 잠재 노동력으로 R21의 풍부한 인적자원이며, 높은 교육열을 통해 고급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풍부한 인적자원과 더불어 다양한 부존자원은 자원수출로 인한 자원수출 신흥국의 성장이 예상된다.

■ 한국기업의 對 R21 국가들로의 활발히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 국가·산업에 편중되어 있음

- 한국기업의 최근 5년간 해외 신규법인 설립 추이 및 국가별, 산업별 설립 현황을 살펴보았다.
- 한국기업이 신규법인을 설립한 146개 국가 중 R21 국가들이 54%를 차지하며 R21 중 6개 아시아 국가들은 상위 10개국에 속해 매우 활발한 해외투자 지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R21 중 중국 및 특정 지역으로의 해외 투자가 편중되어 있으며 진출한 산업도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기타 산업들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향후 한국기업이 해외 진출 고려 시 진출 목표 및 여건에 부합하는 국가를 선정해야 할 것

- R21 신흥국 그룹에 선정된 국가들은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현재 분류되고 있지만 이것이 모든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는 보증수표라고 단정지어서는 안될 것이다.
- 발전 가능성이 크고 투자에 대한 이익이 큰 만큼 그에 따르는 치열한 경쟁과 여러 리스크가 상존할 것이다.
- 따라서 한국 기업은 R21 국가에 한정을 두기보다는 각 기업의 해외진출 목표 및 여건에 부합하는 국가를 선정하여 진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 해외 진출을 계획할 때 해당 국가의 철저한 사전조사와 리스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국의 모임 R21

2040년 한국은...

‘2040년 한국은 1인당 GDP규모가 4만4,740 달러가 되면서 세계 4위로 올라설 것이다.’ 세계적인 금융회사 씨티그룹(Citigroup)이 2011년 3월에 발표한 보고서이다. 분명 한국인으로서 기분 좋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한가지의 의문이 남는다. 그것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이다. 실제로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한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해외 국가 경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는 경제구조로서 대외의존도가 80%에 달하는 한국으로서는 해외투자 및 교역은 필수불가결한 경제 활동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에 이어 남유럽 국가들의 지속적인 재정적자 문제, 2011년 중동의 정전사태, 일본의 대지진 등은 세계 경제의 복잡성을 증가시켜 향후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불안으로 인해 여느 기업을 막론하고 향후 전략 수립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 침체 이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신흥국의 지속적인 경기 회복은 향후 신흥국이 신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선진국의 수요 감소는 신흥국의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 방식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확산 시키면서 신흥국들은 수출중심의 경제성장 모델에서 내수중심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신흥국이 한국 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신흥국 발굴을 통한 신시장 개척은 해외 투자 및 교역의 의존도가 큰 한국경제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향후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신흥국 그룹 R21

2000년대 첫 10년 동안 세계경제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BRICs)의 부상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BRICs의 경제상황은 기업 및 투자자들의 주된 관심사로 떠올랐고 결국 BRICs는 더욱 빠른 경제성장을, BRICs에 투자한 기업 및 투자자는 많은 이윤을 남겼다. 하지만 새롭게 맞이하는 2010년대에도 BRICs가 빠른 성장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아니라면 차세대 BRICs를 이어갈 신흥국가들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전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신흥국은 어떤 국가이며 차세대 BRICs로 점쳐지고 있는 국가는 어떤 국가인지 알아볼 것이다. 나아가 현재 우리는 이들 신흥국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신시장 개척은 향후 새롭게 부상할 신흥국 발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대표적 신흥국 그룹으로 2003년 골드만삭스가 2000년대를 이끌어 갈 국가로 지목한 브릭스(BRICs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들 수 있다. 골드만삭스가 단순히 투자대상국가를 선정해 놓고 이를 편리하게 부르기 위해 만든 조어가 지금은 BRICs 국가들의 정치 지도자들간의 정치적 모임으로 진화하기까지 했다.

BRICs와 같은 거대 신흥시장 중심의 비즈니스가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부터는 BRICs의 뒤를 이을 차세대 주자에 대한 관심과 발굴 노력이 급증해 여러 투자기관 및 세계경제 관련 기관의 다양한 신시장 그룹 발표로 이어졌다. 예로 BRICs로 유명세를 치른 골드만삭스는 넥스트11(Next-11)과 MIKT를 추가로 발표했고, 브릭스 경제연구소는 VISTA,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MAVINS를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경제전문 일간지인 한국경제신문은 2011년을 맞이하면서 E10을 발표했다.

2003년 이후 최근까지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신흥국 그룹을 다음 표와 같이 살펴보면 한국을 포함한 총 21개 국가를 말하고 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신흥국 그룹들에 속한 21개국의 신흥국을 ‘R21’, 즉 새롭게 떠오른다는 의미로 Rising 21로 지칭하고 이들 R21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분석해보고 지역별로 각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회요소를 조사하였다.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국의 모임 R21

각 기관에서 발표한 신흥국 그룹

No.	Countries	GDP (USD Bil.)	GDP Growth (%)	Population (Millions)	인구 증가율 (%)	BRICs	Next-11	VISTA	MAVINS	BRICS	MIKT	E-10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	브릭스 경제연구소	비즈니스 인사이드	BRICS	골드만삭스	한경
						2003	2005	2006	2010	2010	2010	2010
1	China	5,745.133	10.5	1,341	3.0	0				0		
2	Brazil	2,023.528	7.5	193	4.2	0				0		0
3	Russia	1,476.912	4.0	140	-2.8	0				0		0
4	India	1,430.020	9.7	1,216	8.4	0				0		0
5	Australia	1,219.722	3.0	22	7.7				0			
6	Mexico	1,004.042	5.0	109	6.2		0		0		0	0
7	Korea	986.256	6.1	49	1.6		0				0	
8	Turkey	729.051	7.8	71	7.8		0	0			0	0
9	Indonesia	695.059	6.0	235	8.1		0	0	0		0	0
10	Poland	438.884	3.4	38	-0.1							0
11	South Africa	354.414	3.0	50	7.4			0	0	0		0
12	Argentina	351.015	7.5	41	5.7			0				
13	Iran	337.901	1.6	75	10.6		0					
14	Thailand	312.605	7.5	68	6.2							0
15	Egypt	216.830	5.3	78	12.6		0					
16	Nigeria	206.664	7.4	156	17.7		0		0			
17	Chile	199.183	5.0	17	6.8							0
18	Philippines	189.061	7.0	94	12.5		0					
19	Pakistan	174.792	4.8	167	10.2		0					
20	Bangladesh	105.402	5.8	164	8.8		0					
21	Vietnam	101.987	6.5	88	7.4		0	0	0			
소속 국가 수						4	11	5	6	5	4	10

자료: 관련기사 및 발표자료를 토대로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왜 R21 국가인가

R21에 속한 21개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서방 선진국들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침체에서 탈피했고 향후 경제성장 속도도 선진국들에 비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이러한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R21국가들은 풍부한 잠재 내수시장 및 활발한 인프라 구축 계획, 우수한 인적 자원, 풍부한 지하자원 보유와 같은 성장요인들 중 적어도 한가지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별로 당면해 있는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상황의 차이가 있는 만큼 저마다 다른 특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R21국가들은 풍부한 잠재 내수시장 및 활발한 인프라 구축 계획, 우수한 인적 자원, 풍부한 지하자원 보유와 같은 성장요인들 중 적어도 한가지이상 보유”

2010년 10월 IMF에서 발표한 세계경제 성장률과 R21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R21 국가들이 얼마나 빨리 경기침체에서 회복되었는지 알 수 있다.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진 2009년 세계경제는 -0.6%로 축소되었다가 2010년 다시 4.8%로 다시 성장했다. 하지만 R21의 경우 2009년 평균성장률이 1.3%로 성장세를 기록한 뒤 2010년에는 5.9%로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이를 통해 R21의 경제성장률의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 보다 약 1% 이상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11년에서2015년 사이의 예상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 본 결과 세계경제 성장률은 4.5%로 전망하고 있지만, R21 국가들의 경우 평균 예상 경제성장률이 약 5.1%로 분석되어 향후 R21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국의 모임 R21

“국가별 인구 순위에서
R21 국가들 중 19개
국가들이 세계 인구
랭킹 상위 50위에 속해”

풍부한 잠재 내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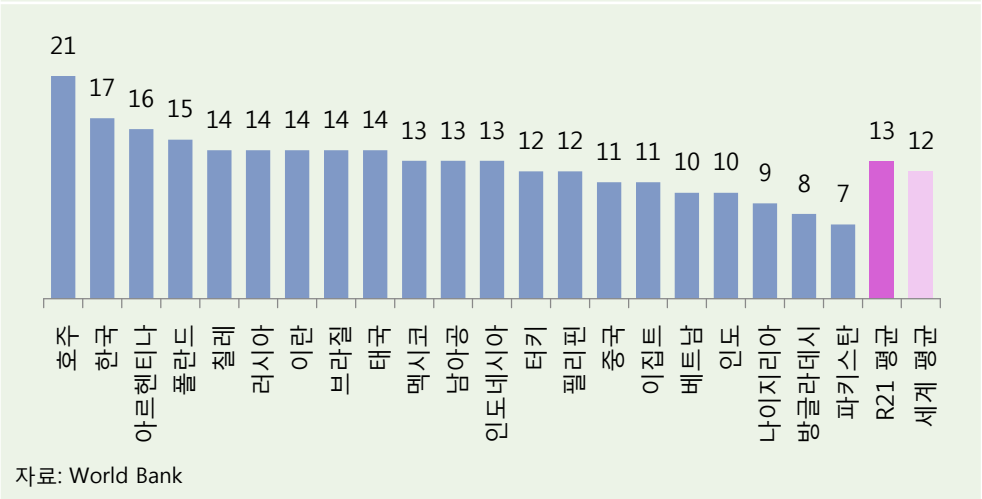
R21 국가들의 첫 번째 특징은 다수의 국가들이 풍부한 잠재적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내수시장의 절대적 규모를 보여주는 인구수를 살펴볼 수 있다. 미국 통계청(US Consensus)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별 인구 순위에서 R21 국가들 중 호주와 칠레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국가들이 세계 인구 랭킹 상위 50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8개 국가는 상위 10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20년에는 상위 10위권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R21에 속해 있는 국가들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R21 국가의 절대적인 내수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시장의 질을 나타내는 1인당 GDP(PPP)의 경우도 R21 국가들은 2010년부터 평균 5%씩 증가하여 IMF에 소속된 183개국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 4%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2015년에는 1인당 GDP가 1만 불을 초과하는 국가가 2010년 12개국에서 2015년 14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이들 국가의 내수시장은 지속적인 질적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R21국가들의 2015년을 기준으로 한 인구수와 1인당 GDP를 비교해 본 결과 중국을 포함한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등은 R21국가들 사이에서 두 부분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여 향후 내수시장 성장에 대한 잠재성이 더욱 높은 국가로 분류되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R21 국가들”

높은 교육 수준의 우수한 인적자원

우수한 인적 자원 역시 R21 국가들 중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5세부터 64세에 속하는 생산가능 연령층 중 전세계의 약 65%의 인구가 R21 국가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R21 국가들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예상 교육기간을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결과 R21 국가들의 예상 교육기간은 190개국의 평균인 12년보다 약 1년이 많은 13년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주, 한국, 폴란드, 아르헨티나는 예상 교육기간이 15년을 넘어 R21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교육열을 보여 주고 있다.

국가별 취학 아동의 예상 교육 기간 (년 수)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국의 모임 R21

풍부한 자원보유량과 자원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은 자원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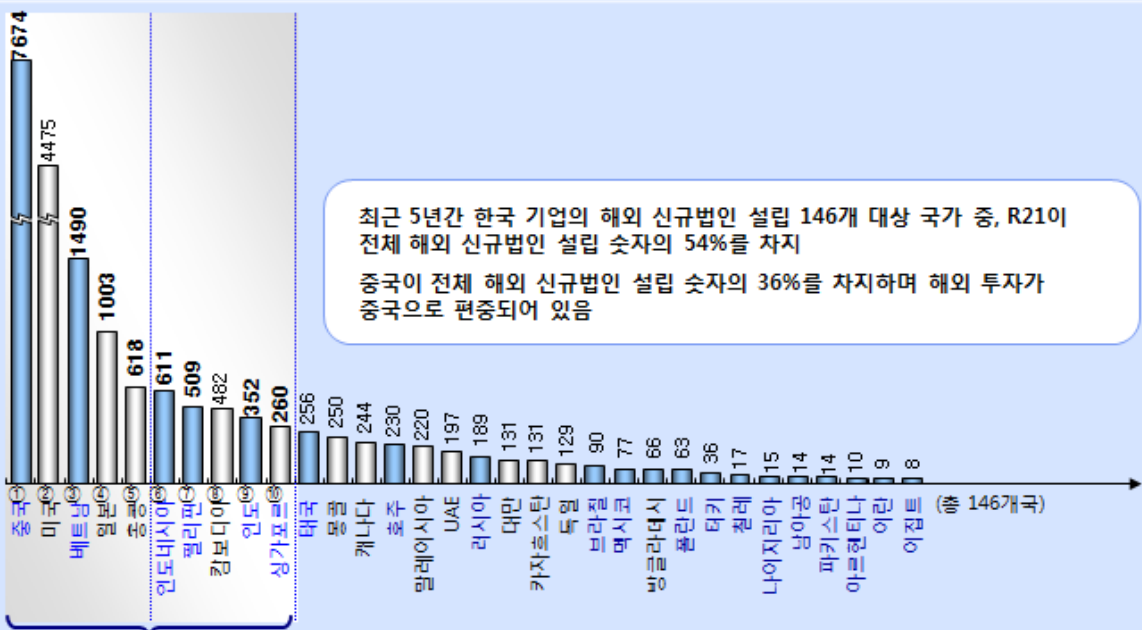
풍부한 자원보유량 및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도 다수 R21국가의 주요 특징이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을 포함한 러시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들은 R21 안에서도 손꼽히는 자원 부국이다. 이들 자원 부국은 세계경제 침체 이후 회복단계에서 국제 원자재 수요 증대가 수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서 빠른 속도로 경기회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자원 확보에 대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풍부한 부존자원은 자원수출로 인한 국가수입을 증가시켜 자원수출 신흥국들은 더욱 매력적인 신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기업의 활발한 對 R21 해외 투자

한국이 R21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감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한국을 제외한 R21의 20개 국가들이 신시장으로써 보유한 매력적인 기회가운데 반드시 우리 몫을 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제 1인당 GDP 2만 달러를 달성했고 실질적인 선진국 대열인 1인당 GDP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로 가려면 신시장 개척을 통한 경제적 영토 확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R21을 대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한국기업의 최근 5년간 해외 신규법인 설립추이를 살펴보면 중국 (36%)을 비롯하여 일부 국가들에 편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였으나 2006년을 정점으로 투자지역이 여러 국가들로 다양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기업이 신규법인을 설립한 146개 국가 중 R21 국가들이 54%를 차지하고 있다. R21 중 6개 아시아 국가들은 상위 10개국에 속해 매우 활발한 투자활동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최근 5년간 1,018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액 중 34%에 해당하는 314억 달러를 R21 국가들에 투자하고 있다.

국가별 해외 신규법인 설립 추이 (2006~2010)



한국의 해외법인 신규 설립 TOP10 중 6개국이 R21에 속한 아시아 국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국의 모임 R21

지역별 R21 국가들의 특징

R21의 지역별 국가 분포를 보면 아시아가 10개국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중남미 4개국, 유럽 3개국, 아프리카 3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 순이다. 우리는 이들 각 지역에 속한 국가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R21은 우리에게 신시장으로써 기회이기도 하지만 성장을 위한 경쟁상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국가별 현재의 특징과 기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이란

거대 내수시장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아시아 국가들은 2009년 세계경제침체 이후 빠른 경제회복을 보이며 향후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신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 결과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가장 많은 10개국이 R21에 포함 되어 있다. 특히 R21 국가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에 속하고 있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거대 내수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아시아가 향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친디아(Chindia)라고 불리는 중국과 인도의 경우 R21 국가들 중 2010년에 가장 높은 10.5%와 9.7%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아시아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중국은 2010년 국내총생산에서 일본을 앞지르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현재 미국과 함께 G2체제를 구축, 세계경제에 그 영향력을 뽐내나가고 있다. 인도도 역시 12억 거대 인구를 바탕으로 2010년 세계 경제 10위로 올라섰으며 미국 경제전망 전문가인 글로벌 인사이드(Global Insight)에 따르면 2022년에는 일본을 앞질러 세계 경제 3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젊은 층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는 인도의 고도 성장을 이끌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풍부한 천연자원 및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의 증가, 정치적 안정을 통해 차세대 브릭스를 대신할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이 외에도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한국, 이란 등이 향후 아시아를 대표할 신시장으로 뽑고 있다.

“아시아지역에 속한 R21 국가는 거대 내수시장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국의 모임 R21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의 최대 해외 투자 대상 지역

아시아는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며 최근 5년간 한국 기업의 총 해외 신규 법인 중 7,674개이며, 총 투자 규모는 181억 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분야로는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자부품, 컴퓨터 등 IT분야의 비중이 높으며 우리나라의 대중국투자의 주축을 구성하고 있다. 한국의 對 베트남 신규 투자 건수는 2010년 234건으로 한국이 누계기준으로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다.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플랜트, 제철소, 신도시 개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R21 아시아 국가 내 한국기업의 국가별 신규 법인 설립 추이 (2006~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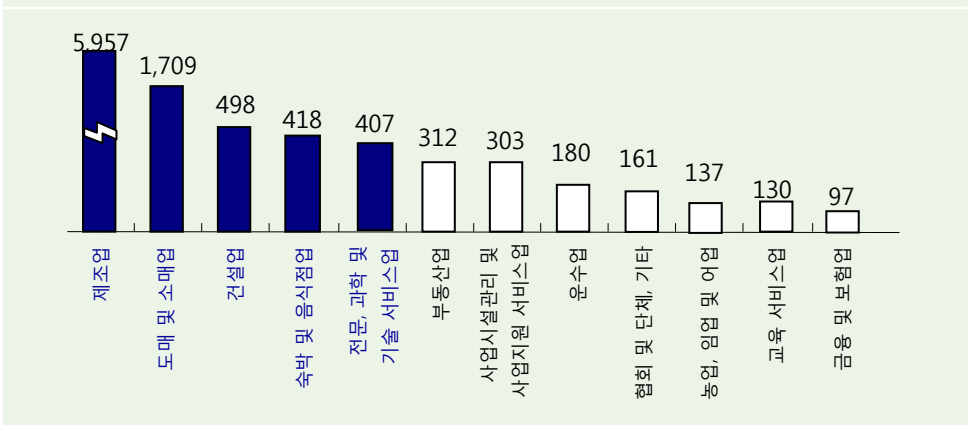
순위	국가명	2006	2007	2008	2009	2010	Total
1	중국	2396	2221	1356	772	929	7674
2	베트남	311	457	315	173	234	1490
3	인도네시아	129	134	148	83	117	611
4	필리핀	112	140	114	69	74	509
5	인도	77	100	67	47	61	352
6	태국	66	66	50	40	34	256
7	방글라데시	12	22	10	10	12	66
8	파키스탄	0	5	2	4	3	14
9	이란	2	2	2	1	2	9
Total		3105	3147	2064	1199	1466	1098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중국은 한국 최대
해외투자 대상국이며
한국 기업의 對 R21
아시아 투자는 주로
제조업”

R21 아시아 국가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산업별 신규 법인 설립 추이를 보면 최근 5년간 5,957개로 제조업이 가장 높았으며, 도매 및 소매업(1,709개), 건설업(498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07개)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의 풍부한 노동 자원을 바탕으로 제조업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최근 들어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건설 및 부동산업 및 숙박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R21 아시아 국가 내 한국기업의 산업별 신규 법인 설립 추이 (2006~201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국의 모임 R21

유럽: 러시아, 폴란드, 터키

광활한 영토와 자원을 경제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다시 떠오르는 신흥 주자

“유럽은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이 기대되며 한국기업의 對 R21유럽국의 투자는 타 지역에 비해 미미”

유럽 국가 중에는 러시아, 폴란드, 터키가 주요 신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0년대 신흥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브릭스의 한 멤버로 세계경제 12위의 경제 대국이다. 하지만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유가 폭락으로 큰 타격을 받았으며, 그 후 실물경기는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대의 넓은 영토와 원유, 가스, 석탄, 철광석등과 같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는 높은 기술력과 양질의 노동력이 합쳐져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약 1억4,000만에 달하는 인구를 바탕으로 하는 거대한 내수시장은 향후 매력적인 신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경제 회복과 더불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원자재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터키와 폴란드도 유럽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할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터키는 EU와 관세 동맹 체결, 아시아와 역사, 민족적으로 이어지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도 약 7,100만 명으로 유럽연합(EU)에 가입할 경우, 독일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회원국이 된다. 폴란드는 동구권 최대 경제대국으로 2004년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수출여건이 개선되어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어 유럽지역의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급부상 중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미미한 편

풍부한 인적자원과 자원 및 투자지역의 내수시장에 비해 한국기업의 유럽지역으로의 진출은 아시아 지역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5년간 러시아 신규법인 설립 수는 189개로 지역 내 가장 많지만 투자규모는 15억 달러로 이는 총 해외 투자액의 1% 수준이다. 폴란드의 경우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신규법인 설립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터키 역시 한국 기업의 신규법인 설립은 뚜렷한 증가추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R21 유럽국가 내 한국기업의 국가별 신규 법인 설립 추이 (2006~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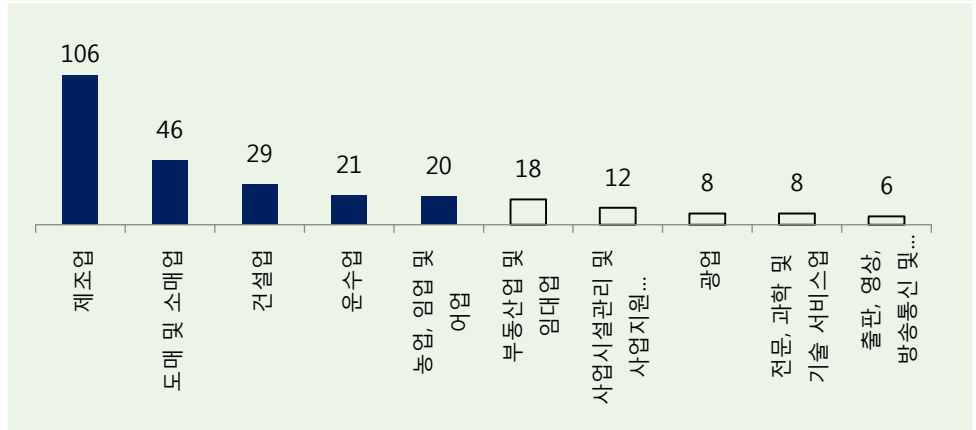
순위	국가	2006	2007	2008	2009	2010	Total
1	러시아	21	52	62	32	22	189
2	폴란드	21	17	13	1	11	63
3	터키	5	12	5	10	4	36
Total		47	81	80	43	37	28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유럽 지역 내 R21국가인 3개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최근 5년간 산업별 신규법인 설립 추이를 보면 제조업이 106개로 가장 높았으며, 도매 및 소매업(46개), 건설업(29개), 운수업(21개) 순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경우 내수시장 증가로 인해 삼성, 현대, 롯데, 한국야쿠르트, 오리온 등과 같은 대기업들의 공장 설립이 활발해 지면서 2008년까지 투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감소하고 있다. 폴란드도 2004년 EU가입에 따른 여건 호전으로 전자, 가전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터키는 제조업 중심으로 한국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으며 인구 7,000만 명의 내수시장과 EU시장을 겨냥한 투자전략을 펴고 있다.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국의 모임 R21

R21 유럽국가 내 한국기업의 산업별 신규 법인 설립 추이 (2006~201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중남미: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세계 경제의 불량아에서 우등생으로...

1995년 멕시코의 폐소화 위기, 2001년 아르헨티나의 채무불이행, 1999년과 2002년 브라질의 경제위기 등 중남미 지역은 그 동안 세계경제의 걸림돌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그런 중남미 지역이 이제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한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네 국가가 단연히 돋보인다. 세계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때만 해도 중남미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않은 않았다. 금융위기 직후 중남미 국가들의 부도 위험도는 3배 이상 증가했으며 2009년 경제성장률은 -1.7%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0년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면서 5.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경제성장률이 7%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브라질의 국가위험도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보다 낮아졌다.

중남미 경제를 이끌고 있는 국가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이며 네 국가는 모두 풍부한 부존 자원을 가진 자원 강국이다. 브라질의 경우 석유, 철광석, 석탄, 주석, 망간, 니켈, 보트사이트 등 30종에 이르는 막대한 광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 멕시코 역시 세계 7위 석유생산국이며 은 생산은 세계 1위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광활한 곡창지대를 바탕으로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으며 칠레는 전 세계 동 매장량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칠레는 또한 남미국가로는 처음으로, 중남미국가로는 멕시코 이후 두 번째로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풍부한 부존자원은 세계경제의 정상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원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이들 네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멕시코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투자 붐

對 중남미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아직 기타 지역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다. 하지만 '09년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경제가 건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브라질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09년 중남미 R21국가들에 대한 한국 기업의 법인 설립 건수는 28건에서 '10년 52건으로 약 86%의 급격한 성장률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남미는 빠른
경제성장 회복세를
보이며 풍부한
부존자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이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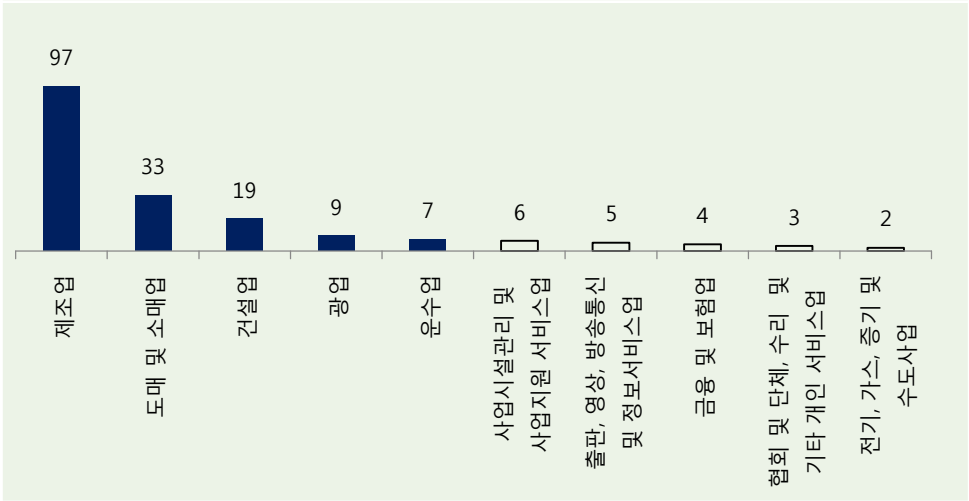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국의 모임 R21

R21 중남미 국가 내 한국기업의 국가별 신규 법인 설립 추이 (2006~2010)

순위	국가	2006	2007	2008	2009	2010	Total
1	브라질	13	21	10	14	32	90
2	멕시코	10	17	22	11	17	77
3	칠레	8	2	2	2	3	17
4	아르헨티나	3	3	3	1	0	10
Total		34	43	37	28	52	19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R21 중남미 국가 내 한국기업의 산업별 신규 법인 설립 추이 (2006~201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국의 모임 R21

오세아니아: 호주

차세대 자원 신시장으로 급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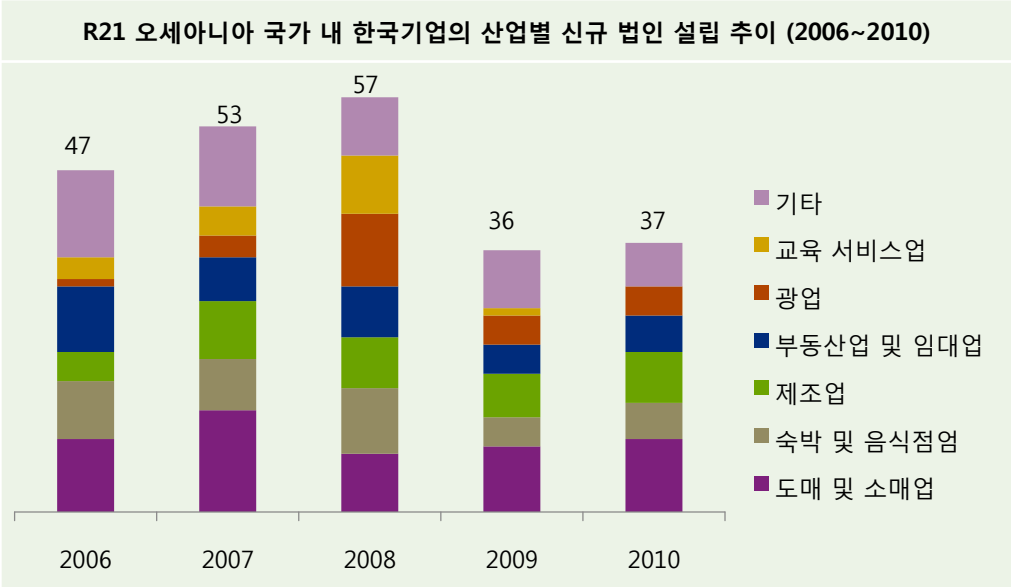
호주는 석탄 매장량 세계 6위, 철광석 매장량 세계 4위에 이르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자원 신시장이다. 또한 호주는 갈탄, 납, 금홍석, 지르콘, 니켈, 탄탈럼, 우라늄, 아연, 보크사이트, 구리, 금, 타이타늄, 철석, 은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주는 다른 자원 보유국들에 비해 정치적 투명성 및 경제적 안정성이 뛰어나다. 그 결과 다른 나라에 비해 자원개발 투자 시 성공 가능성이 높아 많은 해외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경제는 금융 위기 이후 광산 붐을 타고 빠른 회복세를 이루었다.

특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중국의 자원수요로 인해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기준 이자율을 상향 조정한 국가들 중 한 국가이다. 다만 경제 구조가 지하 자원 및 농산물에 집중되어 있어 국제 자원 가격 및 기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 증가

호주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2008년 금융위기로 교육 서비스 업과 숙박 및 음식점 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면서 2008년에 비해 2009년 신규 법인 설립수가 약 37% 감소하였다. 하지만 세계경제침체이후 호주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서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한국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오세아니아는 차세대
자원 신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의 제조업 및
도매·소매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되고 있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인류의 마지막 신시장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3국가가 R21에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미개척지, 마지막으로 남은 자원의 보고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 아프리카는 높은 인구 성장과 풍부한 에너지 자원, 높은 인프라 구축 니즈로 향후 새로운 신시장으로 부상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크롬, 금, 망간, 바나듐, 플래티넘, 우라늄과 같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젊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통한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아프리카의 주요 석유 수출국으로써 세계 10위의 원유 매장량과 세계 7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유전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중동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공급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집트는 풍부한 문화 유산과 8000만 명에 달하는 인구, 세계 15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자랑한다. 특히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과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여 신시장으로서의 매력을 드높이고 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자원의 보고,
아프리카는 앞으로
유망한 신시장인데
비해 한국기업의 투자
및 진출은 아직 미미”

향후 가장 매력적인 시장, 투자는 아직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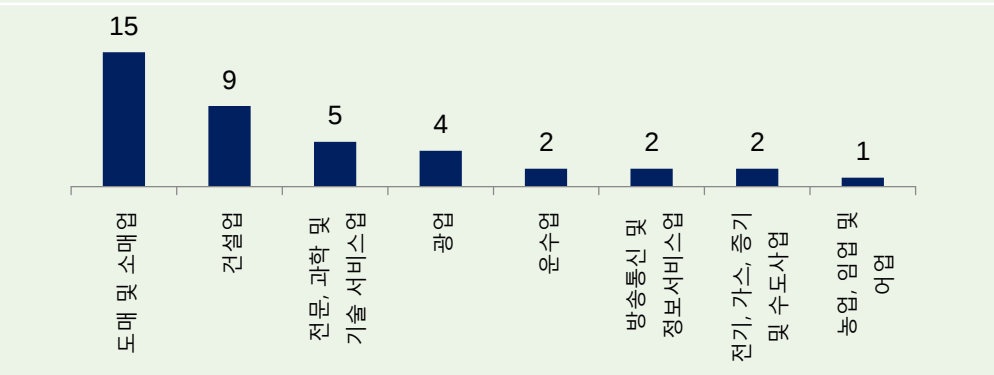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투자는 아프리카의 높은 발전 가능성에 비해 아직 많이 미미한 단계이다. 남아공의 경우 2010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불구하고 한 해 신규 법인 설립 수가 3건에 그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와 이집트는 각각 1건씩을 기록했다. 특히 나이지리아의 경우 풍부한 석유자원과 높은 인프라 확충 니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향후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특히 건설업 및 광업, 통신 및 수도사업과 같은 인프라 부문에 대한 아프리카의 투자를 늘려가야 할 것이다.

R21 아프리카 국가 내 한국기업의 국가별 신규 법인 설립 추이 (2006~2010)

순위	국가	2006	2007	2008	2009	2010	Total
1	남아프리카공화국	4	3	3	1	3	29
2	나이지리아	6	5	3	0	1	18
3	이집트	1	2	2	2	1	12
Total		11	10	8	3	5	5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R21 아프리카 국가 내 한국기업의 산업별 신규 법인 설립 건수 (2006~201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국의 모임 R21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R21 국가들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는 내수시장 확대 및 활발한 인프라 구축 계획, 우수한 인적 자원, 풍부한 지하자원 보유 등으로 인해 향후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R21국가들은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에서 주요한 지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한국기업의 총 해외 신규 기업 투자 중 54%가 R21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R21 국가들 중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일부 국가와 일부 산업 특히 제조업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한국이 향후 해결 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R21 신흥국 그룹에 선정된 국가들은 이미 여러 글로벌 경제 기관들에 의해 분석되어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것이 모든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는 보증수표라고 단정지어서는 안될 것이다. 발전 가능성이 크고 투자에 대한 이익이 큰 만큼 그에 따르는 경쟁심화 및 기타 리스크도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R21에 포함된 국가들 중 한국기업의 진출 목표와 진출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곳도 존재한다. 그리고 비록 R21에서 제외 되었지만 캄보디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나라이고 실제로 한국 기업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므로 눈 여겨 봐야 할 국가 들에 속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신시장 개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R21국가를 넘어 또 다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먼저 지역경제와 관련된 전문 자문기관을 통해 철저한 환경 조사 및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여 투자의 성공률을 높여 가야 할 것이다.



삼성KPMG 경제연구원

이광열

삼성KPMG 경제연구원, Partner

T: 02-2112-0062

E: kwangryeolyi@kr.kpmg.com

고아름

Senior Analyst

T: 02-2112-0697

E: ako@kr.kpmg.com

김현규

Analyst

T: 02-2112-7485

E: hyungyukim@kr.kpmg.com

www.kr.kpmg.com

© 2011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logo and "cutting through complexity"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